

동북아 경제 중심, 통일 전진기지로 발전하는 경기북부 지역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남북 경제협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경기북부 지역은 동북아 중심 도시, 통일의 전진기지로의 발전이 예상되며 그러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도시이다.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구조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접경 지역의 특수성과 규제 중첩으로 지금까지는 지역 개발이 저조하였으나,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남북 경제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지가가 저렴하며, 교통시설 확충 등의 물류유통이 한층 편리해지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타 지역에 비해 산업구조가 활발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02년 기준 인구 704,600여명 중 62.2%가 경제에 참가하고 있고 업체수는 132,517개사에 569,65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 중 제조업을 비롯해 농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등에 20,732개사, 169,988명이 종사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서 각각 15.6%와 29.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단지로는 자유로변의 파주시 교하 지역에 21세기 지식정보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48만평의 『초대형 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는 것을 비롯해 파주 IC 필립스 산업단지, 섬유염색 연구지원센터 등 12개의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거나 조성 계획 중에 있다.

현재 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업체가 입주한 단지로는 탄현영세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 1개소와 파주문발, 포천신평 등 12개소에 총 265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며, 8,753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 중 종이, 인쇄, 반도체, 조립금속업이 입주한 파주문발Ⅱ에 가장 많은 2,106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섬유, 조립금속업체가 주로 입주한 의정부 용현 산업단지에는 가장 많은 67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지역이 넓고, 30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99%나 차지해 그만큼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 사업장의 39,540개사에 대한 2003년 11월 평균 재해율이 1.12%라는 점과 사망만인율이 3.48라는 자료만으로도 알 수 있다.

반면, 경기북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재해예방단체로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가 눈에 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 지역의 재해율은



전국 평균재해율보다 상회하는 수치이나, 같은 지역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가 관리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평균재해율이 12월 말 기준 0.52%임을 볼 때, 민간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지역산업사회의 숨은 일꾼 안전인

경기북부지역에는 99%가 30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사업장이 대부분이며, 그만큼 산업여건이 열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안전인으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한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 정대용 안전관리자와 (주)한진중공업 경원선 제3공구현장 김정수 안전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 정대용 안전관리자 〉

이런히 옛 추억을 되짚어 보면 가정에 배달되는 병에 담긴 우유와 학교에서 볼 수 있었던 삼각뿔의 하얀 우유가 떠오른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건강한 신체를, 가족간, 친구간의 사랑과 우정을 확인시켜주었던 그 서울우유.

예로부터 서울우유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우유(낙농)을 통해 모든 이의 꿈을 실현한다”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기업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서울우유협동조합에 건강한 근로자를 위해 땀흘리는 안전인이 있다하여 찾아갔다. 200ml 250만개의 생산설비를 보유한 양주공장이 오늘 찾은 곳이다.

88년에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입사하여 99년 2월부터 양주공장에서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는 정대용 안전관리자는 「안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재해는 예고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입니다. 따라서 항상 안전 앞에서는 긴장을 풀지 않는 자세와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다. 안전에 대해 굳이 정의를 내려 한정짓지 말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대용 안전관리자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침착한 행동을 강조한다. 서두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생략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곳 양주공장에는 모든 공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져 대형 사고의 위험은 적다. 그러나 종종 근로자들의 생략된 행동에서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에 정대용 안전관리자는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안전교육에 대해 철저를 기한다. 매월 2시간씩 팀별, 반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는 교육전문기관인 안전협회에 의뢰하여 전문지식을 습득케 한다.



▲ 정 대 용 안전관리자

한편,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로써 양주공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공장 내외곽 지역에 담당 구역을 정해 환경미화에도 적극적이다. 근로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삶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정대용 안전관리자의 이야기이다.

인터뷰를 하다보면 정대용 안전관리자는 매우 활동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뇌리를 자극한다. 마라톤으로 단련된 심신에서 나오는 추진력 때문일 것이다. 올해 3년의 마라톤 경력을 가진 정대용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나약해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없다. 건강한 심신이 바탕이 될 때 근로자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마라톤을 하게 된 계기를 들려준다. 아직은 10km를 주파하지만, 하프, 풀코스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에 무재해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한진중공업 경원선 제3공구 현장 김정수 안전과장》

21세기 세계 초일류 종합 중공업체로 성장하고 있는 (주)한진중공업의 경원선 제3공구 현장(최복동 소장)을 찾았다. 이는 서울의 많은 통근수요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에서부터 경원선 연장공사로 서울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편안한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곳에서 만난 안전인이 바로 김정수 안전과장이다. 현장 소장인 최복동 소장은 김정수 안전과장을 타고난 성품의 소유자로 회사를 대표할만한 인재라고 소개한다. 또한, 그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있어 현장에서 김정수 과장의 인기는 최고라고 얘기한다.

93년 9월에 한진중공업에 입사하여, 아파트 현장, 플랜트 현장, 토목현장(도로, 터널) 등 모든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김정수 과장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이 확연히 달라 당황했다고 과거를 회상한다. 그러나 당시 선임이 전문안전관리자여서, 개인적으로 체계적인 안전업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얘기한다. 돌이켜 보면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안전업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주변환경이 많이 도와주어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겸손해한다.



▲ 김정수 안전과장

아직도 김정수 안전과장은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업무를 전개하기 보다는 관리자를 상대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당시 선임의 말을 기억한다. 근로자와 직접 해결하려다 오히려 반감에 따른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안전시설, 보호구 등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어려운 것이 안전관리인데, 안전관리자 혼자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근로자와 직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도와줄 때 비로소 해당 현장에서 올바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며 무재해를 꽃피울수있다고강조한다.

또한 재해의 대부분이 불안정한 행동에서 기인됨을 볼 때 근로자의 의식 변화를 위한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그에 대한방안으로 현장 정리정돈과 안전교육을 꼽으며, 어느 현장이나 모두 하는 당연한것이지만 근로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다.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무재해 준공할수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각오다.이와 함께 개인적으로도 기술사에 도전하여 안전인으로서 한단계 도약하고, 국가적으로도 평가받는 안전인이 되겠다는 김정수 안전과장의 뜻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기원한다.

재난방지시스템

경기북부지역의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서울근접 생활군으로써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주시의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행락객의 증가로 교통사고 및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이를 관할하고 있는 의정부소방소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현장상황관리 및 재난 대응책을 확립하기 위해 '04년 소방력 운용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펼친다.

소방수요의 증가와 소방사각지역의 해소를 위해 양주소방서 신축과 소방피출소 신축을 추진하고, 신속한 사고현장 출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전 가용소방력의 동원계획 및 광역응원출동 체제구축, 재난관련 유관기관과의 응원 협정 체결 등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현장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또한 효율적인 현장활동 통제를 위해 유·무선 통신장비의 현대화와 119상황실의 인력·장비를 보강하고,건물이 대형화됨에 따라 소방전산화와 영상 도상훈련으로 화재발생시 입체적인 진압전술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소방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119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지역 케이블 TV와 언론을 통해 소방안전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종덕기자〉

